



**Homily of His Eminence Frank Cardinal Leo
Metropolitan Archbishop of Toronto
Stewardship Sunday - 20 September 2026**

주님 안의 형제자매 여러분,

찬미 예수님.

오늘은 토론토 대교구 전역에서 매년 9월 셋째 주일에 지키는 봉사 주일입니다. 복되신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비유는 언뜻 보면 관리인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포도밭과 특이한 고용 방식, 불공평한 품삯에 관한 이야기처럼만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면, 이 비유는 사실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어떻게 살아가고 체험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임을 알게 됩니다.

이 비유의 풀이에 주목해 주십시오. 포도밭의 주인은 이른 아침에, 오전 중에, 정오에, 오후에, 심지어 하루가 거의 저물 무렵까지 거듭 밖으로 나갑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한 번만 부르시지 않고, 삶 전체에 걸쳐 계속하여 부르십니다. 관리인직이란 은총으로 가득한 이 초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에 충실한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먼저 온 일꾼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들은 하루 전체를 다른 사람의 마지막 한 시간과 비교합니다. 비교는 각자에 대한 부르심에서 그들을 멀어지게 하고, 다른 사람의 상황, 즉 늦게 온 일꾼들이 처한 사정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장터에서 기다리던 이들은 일을 하지 않고 쉬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선택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일 자리를 잃어본 분들이라면 누구나 외면당하는 아픔, 그리고 필요한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 삶의 기본적인 필수 요소를 가지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아실 것입니다. 그들이 “하루 품삯”을 받았을 때의 기쁨과 안도감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주어진 “품삯”은 한 시간의 노동에 대한 대가가



아닌 자비이며, 잃었던 존엄을 되찾아 주는 은총입니다. 또한 우리를 너그럽이 돌보시는 하느님의 섭리를 보여 줍니다.

영적 생활과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큰 위험이 있습니다. *받은 은총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밭에서 몇 년 동안 일하면서도 어느새 불평과 타성에 젖고, 속으로 손익을 따질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에 충실하면서도 속으로 고민할 것입니다. “왜 제 삶이 더 힘들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더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것을 얻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뿌리를 박게 되면, 관리인 정신은 무너집니다. 우리가 일하기를 멈추어서가 아니라, 믿기를 멈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하느님의 현존과 은총에서 멀어지고, 자기 자신과 웅졸한 마음에 머물게 됩니다.

이야기로 돌아오면, 포도밭 주인은 분명히 대답합니다. “당신은 나와 품삯에 대해 합의하지 않았소?” 달리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준 것이 당신에게 충분하지 않았단 말ियो? 청지기 정신은 이익이나 결과를 최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지금 주시는 것에 충실하고, 더 많이 나누기 위한 방법을 찾는 자세입니다. 일찍 온 품꾼들은 포도밭에서 온전한 하루 품삯을 받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려 축복을 저주로 바꾸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일, 가정, 우정, 일상의 책임들을 하느님과 만나 은총이 펼쳐지는 곳이 아니라, 무겁고 힘들게 견뎌야 하는 의무로 여길 때, 우리는 하느님의 현존과 사랑, 활동을 놓치게 되며, 심지어 서로마져 보지 못하게 됩니다. 함께 일하는 이들은 경쟁자, 짐, 낯선 이가 되고, 우리는 은총이 다른 때, 다른 소명, 다른 삶에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은총, 하느님의 사랑, 현존과 활동은 우리 안에, 그리고 지금 이 부르시는 곳, 지금 여기에서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관리인직은 완벽하게 봉사하는 삶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에 충실하여, 늘 우리 삶과 그 주변에서 사랑하시고, 임하시며, 행하시는 하느님께 온전히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사랑으로 하느님을 대할 때, 관대함이 가득 따라올 것입니다. 포도밭은 막연한 곳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 우리 본당과 가정, 그리고 우리의 하루를 채우는 소소한 책임 안에 있습니다. 하느님은 저마다 다른 은사와 짐을 지닌 우리를 서로의 곁에 두십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것뿐 아니라, 다른 이의 부르심을 알고, 존중하며, 그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 또한 관리인직의 한 부분입니다.

하느님의 현존 안에 머무른다는 것은 “얼마나 많이 내어 드려야 하는가?”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비교가 아니라 연민이며, 의무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주인은 일꾼들을 부르러 거둢 나가시며, 하루의 모든 때마다 먼저 찾아오십니다. 이르든 늦든 포도밭에서 보내는 모든 시간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제라드 맨리 홉킨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세상은 하느님의 위대하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머무르는 것. 주님 안에 머무는 것. 비교하지 않고 주어진 시간을 받아들이는 것.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오늘의 복음이 여러분께 조용히 건네는 초대입니다.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와, 내 삶의 현실을 다시 받아들이십시오. 남과 견주고 따질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맡기신 것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결국 중요한 것은 품삯이 아닙니다. 주님이시며 주인이신 그분의 현존 안에서 살아가고 일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랑하도록 초대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선물입니다. 그리고 결국 참된 선물은 주님 자신이십니다.